다산포럼

기억의 기만(欺滿)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이론과 종교사회학 분야에 방대한 저술을 남긴 미국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L. Berger, 1929~)는 70년대 중엽 펴낸 '희생의 피라미드'라는 책에서 전후 사회주의 발전 경로를 겪었던 중국과 자본주의를 택했던 브라질의 두 대국을 비교하며 근대화의 비용을 계산한 바 있다. 에세이 풍의 사유로 풀어낸 그의 주장을 정설로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그는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성장의 신화'를 전면에 내걸었던 자본주의적 발전 전략도 '혁명의 신화'를 기치로 학살과 테러의 폭력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공산주의의 그것 못지않게 인간 희생의 탑 위에 건설되었다고 관찰한다.

그 책이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출간됐고 저자가 사회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보수적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학계 안팎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체주의로 범주화된 20세기 좌우의 극단적 독재 정권들이 저지른 악행이야 누구에게나 끔찍한 것이지만, 인류는 반세기 가까운 냉전을 겪으며 흑백과 선악의 논리에 따라 편 가르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해 하는 세월을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기억은 집단적으로 편집되어 공식화되었으니, 반세기에 사반세기를 더하며 세계 최장의 냉전을 살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 편견에 중독된 존재

성경 구약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대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하나님이 아홉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며 자유를 안겨 주었지만, 그들은 사막의 혹독한 삶에 맞닥뜨리자 노예의 땅 이집트를 오히려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겠노라고 울부짖는다.

노예 상태를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과 내면의 노예근성을 거둬 내는 일은 전혀 별개였으니, 광야 40년의 길고 고된 세월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해방을 위한 훈련의 도정이었다. 인간은 기적을 눈앞에서 생생히 체험하고도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곧바로 기억을 취사선택하는 취약한 존재인 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행한 일련의 고별 연설들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며 자기 민족이 뒤틀린 기억의 미망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다.

기억의 왜곡이 집단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기억과 관련해서 인간은 모두 편집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거니와 편견에 중독된 자신의 기억은 확신하면서도 타인의 기억은 쉽사리 불신한다. 심리학조차 종종 개인을 피해자(victims) 아니면 가해자(villains)로 환원하는데, 악당보다 희생자가 되고픈 우리는 환경과 부모를 탓하며 평생을 분노와 원망 아니면 자책과 죄의식과 자기 비하 혹은 자포자기에 젖어 살기 일쑤다. 가령 영화 '애더럴 다이어리'(The Adderall Diaries, 2015, 파멜라 로만노프스키)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어릴 적 일탈을 폭력적으로 교정하려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 아버지는 '자신은 그저 아들을 폭력적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썼을 뿐'이라며 울먹인다. 결국 부자는 화해하나, 비극은 이미 한참 진행된 뒤였다.

치유, 미망에서 벗어나기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기억의 미망이 빚은 대표적 비극이다. 오셀로는 새로운 선택들 앞에서 번번이 이아고가 쳐놓은 그물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거니와, 데스데모나에 대한 애틋한 기억들은 하나하나 오셀로의 의심을 정당화시키고 현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어둡게 편집되며, 기어이 참극은 찾아오고 만다. 실은 유혹에 빠져드는 일이란 유혹의 덫을 놓는 것 못지않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세상은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밖에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기억의 기만이란 그물을 촘촘히 쳐놓고 바보 프레임에 자청해서 갇혀 그 안에서 편안해 한다. 실패는 모든 성공들보다 훨씬 집요하게 우리의 기억을 파고들어 머물며, 무수히 들었던 칭찬도 상처받았던 비판 한 마디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기억이다. 그리하여 치유(healing)란 요란한 심리 상담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스스로 쳐놓은 미망(deception)을 그저 벗어나면 완성되는 것이다.

12월이니 새해 또한 멀지 않았다. 올해도 홀마크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한없이 평화로운 아기 예수의 얼굴이 담겨 있겠지만, 그것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모습일 리 없다. 출생 시부터 가난과 고대 중동의 풍토가 주는 온갖 냄새에 찌든 육신을 끌며(Jesus stinks), 비천한 무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았던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외모도 풍채도 보잘것없고 아무런 매력도 없어 누구도 가까이하길 꺼리는, 슬픔과 질고(疾苦)를 아는 자'였다. 예수는 낮아지고 취약해짐으로써 뒤틀린 관계들의 회복을 꾀했거니와, 오늘의 한국 교회가 그를 잊을수록 물량과 크기에 집착하며 온갖 편법으로 세습을 도모한다 한들, 하등 놀랄 일이 아니다. 어쩌면 예수야말로 가장 왜곡된 기억의 희생자일지 모른다. 어쨌든 새해엔 우리 모두 그간 자신을 옥죄던 기억의 기만들을 샅샅이 찾아내 훌훌 떨쳐 버렸으면 좋겠다.

교단에서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김 진 구
우산중 교감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더 낮추고 형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강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범행 내용도 충격적이어서 그렇다. 소년법상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인 소년을 범죄 소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을 한다.

소년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하지만,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형사법원에서도 재판한다. 소년에 대한 형사 재판은 범죄 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목적이고, 가정법원의 소년부 재판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차원의 처분이다.

김민수(가명)는 중학교 3학년이다. 지금까지 결석이 60일이다. 연간 총 수업 일수 중 결석이 3분의 1이면 유예 처분을 받아 졸업할 수 없다. 내년 2월 졸업까지 4일 이상 결석을 하면 민수는 중학교 졸업이 안 된다. 그런데 가출하여 이곳 저곳 떠돌아다녀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민수가 이제 무난히 졸업할 것 같다.

민수는 지난 5월 22일까지는 아주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이튿날 야외에서 졸업 앨범 사진을 촬영하는데 민수 반으로 전학생 한 명이 배정되었다. 이날이 전학생의 첫 등교일이었다. 민수는 풀죽어있는 전학생에게 다가가 호의를 베풀었고 앨범 사진을 찍으면서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피시방으로 함께 간 것이 비행의 시작이 되었다.

민수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태어나자마자 키울 여력이 없는 부모가 시설에 맡기려 하자 외조부가 데려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것이다. 초등학교 때에는 효자상을 받을 정도로 생활 환경에 비해서 잘 성장해 왔다. 그런데 이 전학생과 친해지면서 가출을 했고 우범 소년들과 어울리며 무면허 운전 5회, 차털이 등 딱 5개월간 수차례 비행을 반복했다. 심지어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선배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가출한 상태에서도 평소 외할아버지가 현금을 월세로 사는 원룸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민수를 비롯한 다섯 명이 문을 따고 들어가 집을 뒤졌다. 2천 여만 원이 나왔다.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민수를 대학에 보내고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십수 년을 모은 전 재산이었다. 모텔로 가서 돈을 나누고 오토바이도 몇 대 샀다. 뼛골 빠진 돈은 손자의 방탕으로 이렇게 순간에 사라졌다.

학교장과 학교 전담 경찰은 수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결석 일수 때문에 가능한 빠른 기간에 조치가 되도록 요청했다.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는 학교에서 보낸 민수의 상황을 참작하여 광주분류심사원으로 한 달간 임시 위탁을 시켰다. 임시 위탁 기간은 학교 출석으로 인정되어 우선 유예를 면할 수 있었다. 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보호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비행 정도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조치를 찾아보는 임시 위탁 기관이다. 따라서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원의 심사 결과는 보호 처분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민수가 소년원의 분류심사원에 있을 때 세 번 만났다. 첫 주 면회 때에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묻자 "자유롭지 않다는 것"과 "담배를 피우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뉘우침 보다는 불편함을 더 호소했다. 둘째 주에는 "함께 다녔던 친구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겠다"고 했다. 민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세 번째 상담에서는 "할아버지께 죄송하고, 학교에 잘 다녀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눈물도 보였다. 중국 주나라 때 싸움닭 조련사 '기성자'가 떠올랐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위협이나 유혹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목계(木鷄). 민수가 목계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외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갔다.

민수는 위탁 생활을 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했다. 재판 하루 전에 면접이 있었는데 이때도 면접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탁 조치를 한나절 해제해 주었다. 학교장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민수는 특성화고 유망한 학과에 합격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에 보답하였다.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는 학교와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임시 위탁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예 처분을 예방했고, 한 달간 반성의 시간을 주어서 건전한 학생으로 학교 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와 가정법원 소년부와의 성공적인 협조 사례가 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깥 날씨는 춥지만 학교로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5개월, 짧지만 힘들게 보냈던 아픔이 앞으로 50년 민수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 고

과학 부문의 노벨상을 기다리며

김 원 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벨상은 노벨이 숨진 날인 12월 10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평화상이 주어지고, 나머지 상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수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처음이다. 2016년 12월 기준 노벨상 수상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306명, 영국 114명, 독일 102명, 프랑스 68명, 스웨덴 30명, 러시아 28명, 스위스 26명, 일본 25명 순이다. 노벨상의 핵심인 물리학, 의학, 화학, 경제학 분야에서는 미국인들의 수상이 압도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시카고 대학은 1892년 개교 이후 30년간 삼류 대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지방에 위치하는 지방 대학교였다. 1929년 로버트 허친스(Robert Maynard Hutchins)가 5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인 'The Great Book Program'을 통해 인문적 소양을 장려하면서 고전 100권을 통독한 학생만 졸업을 시키겠다고 선언한 후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오늘날 시카고 대학은 8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상위권의 명문대학이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청색 LED를 개발한 일본인 과학자 3명을 선정했다. 일본 메이죠 대학의 아카사키 이사무 교수, 나고야 대학 아마노 히로시 교수,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나카무라 슈지 교수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다. "청색 LED 개발로 백색광도 가능해졌다. LED 전구의 등장으로 기존 광원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 친환경 광원으로 조명 기술에 혁신적인 시대를 열었다."

3명의 과학자가 반도체를 이용하여 밝은 청색 LED를 개발한 것은 학계와 조명 산업계가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難題)를 해결한 것이다. 마침내 3명의 과학자는 인류의 역사상 '제3의 불'을 발명하였다. 청색 LED 개발은 1879년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후 무려 113년 만에 연구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21세기 빛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 2명을 포함하여, 역대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 나고야(名古屋)대가 주목받고 있다. 나고야 지방 국립대학교가 노벨상의 산실이 된 비결에 대하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유로운 학풍, 실용 지향성 및 고향 사랑'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2015년도 기술무역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 규모는 268억 1700만 달러이다. 기술 수출액은 104억 800만 달러이고, 기술수입액은 164억 800만 달러로 기술 무역 수지는 60억1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에서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의 원인은 원천 특허와 기초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자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특허 등 기술 도입에 따른 로열티(royalty)라 할 수 있다. 기술 무역의 흑자 국가들은 노벨상 수상자가 많고, 원천 특허와 기초 기술이 많다.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과학자나 발명가가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창조할 수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은 세상을 바꾸지만 인문학은 사람을 바꾼다. 문학, 철학 등 인문학은 사람을 만드는 희망의 학문이다. 인문학이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社 說

하동에 밀린 보성 녹차 그동안 뭐 했길래

흔히들 녹차 하면 보성을 떠올리게 되고 보성 하면 녹차를 떠올린다. 그만큼 보성의 녹차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녹차 산업은 지역 농가소득의 대표적 효자 종목이었다. 물결치듯 일렁이는 차 이랑과 아름드리 삼나무가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을 빚어내는 보성 녹차밭은 2013년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성 녹차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젊은 층 위주의 음료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급격히 줄어든 수요 때문만은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 하동 녹차가 유엔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경남 하동군의 지역 전통 차(茶)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했다.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세계중요농업유산이다. 차 산업으로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며 세계에서는 일본 1곳, 중국 2곳에 이어 네 번째다. 하동 전통차 농업이 전 세계가 함께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하동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녹차 최대 주산지인 보성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보성 녹차가 역사성 측면에서 하동 녹차에 밀린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하동군이 대한민국 첫 차 재배지라는 점과 차 명인을 연속 배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보성군은 이제부터라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성 녹차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차 산업·문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자원도 마련하는 판에 보성 녹차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진 보성군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의 공원·녹지 확대 예산이 관건이다

공원일몰제(2020년)로 도심 공원 축소가 불가피해지자 광주시가 대비책으로 공원·녹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공원 146개소와 녹지 5개소 등 모두 151개소 확충을 골자로 한 '2030년 광주시 공원녹지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광주시 공원녹지계획에 따르면 현재 공원은 606개소(1970만8000㎡)에서 146개소가 늘어난 752개소(2431만㎡)로, 녹지는 95개소(397만3000㎡)에서 5개소를 추가해 100개소(409만90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연히 1인당 공원·녹지(13.39㎡·23.68㎡) 면적도 각각 14.30㎡, 28.41㎡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광주시 지정 보호수가 있는 77곳을 모두 소공원으로 지정해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공원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해 정원문화도시 581개소, 중점녹화지구 7개소 등도 만들 예정이다.

광주시의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일몰제로 도심에서 사라지는 200만㎡에 달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대체 녹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즉 단순히 녹지 면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권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2030년 광주시 공원녹지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할 경우,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포함해 1조 600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시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13년 동안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공원별, 사업대상지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無 等 鼓

돈키호테력

최근 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광고 전문가인 박웅현 TBWA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대표의 강연을 듣다가 '돈키호테력(力)'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접했다. 그는 '창의력은 발상이 아니라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5년 전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여행기 '스페인 기행'을 읽다가 '콜럼버스, 그는 바다의 돈키호테였다'라는 구절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동료와 '돈키호테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련 다큐멘터리와 책을 만들었다. 프로젝트 팀이 주목한 인물들은 잡지 '뿌리깊은 나무'를 만든 고 한창기 선생을 비롯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시대를 앞서간 화가 마네 등 11명이다. 당대에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인정을 받은 인물들이다.

강연을 들으며 치과 의사인 S를 떠올렸다. 그는 'S가이버'로 불린다. 워낙 손재주가 좋아 뭐든지 능수능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 종일 환자들을 진료한 후 퇴근하면 취미로 별을 본다. 그러나 업체에서 만들어져 나온 제품들은 그의 양에 차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자기 기호에 맞게 장비들을 개량하거나, 필요한 액세서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둘씩 만들게 됐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천체망원경은 접안렌즈를 통해 한쪽 눈으로 관측한다. 이런 방식에 불편을 느낀 그는 반사망원경 2대를 연결해 두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쌍안 천체망원경을 만들었다. 물론 기성 제품도 나와 있긴 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자신의 두 손으로, 실패를 거듭하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어렵사리 그가 만든 물건들은 기성품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 준다. 나아가 그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요즘 창의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날 때부터 타고난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을 실행하는 한 사람의 '돈키호테'가 필요한 시대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년과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만을 지향하는 이때에 아마추어 발명가 S처럼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 '돈키호테력' 아닐까.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